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 수년째 '미적'

전북도, 제대로된 수요조사 없이 무리한 계획으로 사업 표류 사업기간 연장에도 민간투자자 못찾아 부지 매립비 증발 위기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관광단지 내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이 10년 가까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에도 마땅한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수백억원대의 부지 매립 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2008년 개통을 앞둔 새만금 방조제 동편에 있는 관광-레저용지(9900㎡) 내 제1공구 게이트웨이(1054㎡)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당초 전북개발공사는 이 부지를 매립한 뒤, 민간투자 등을 받아 2013년까지 1300억원을 들여 랜드마크와 연수 시설, 상업·숙박시설을 갖춘 계획이었다.

이후 관광-레저용지로 사업을 확장해 올해까지 골프장 90홀과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을 유치해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 중 하나로 조성하겠다고 밝혔

다.

추정 사업비만 7870억원에 달하는 대역사였다.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의 관문', '개발의 시작' 등의 미사여구를 써가며 언론 등에 장밋빛 전망을 잇달아 홍보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신속히 사업에 착수해 2011년 게이트웨이 부지 매립을 끝마쳤다. 비용은 실시설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00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매립 이후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꼬였다.

별다른 배후 시설 없이 방조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매립지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우선 게이트웨이만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매립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담은 계획 변경을 마쳤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로 연장했고,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 구상도.

추정사업비도 2310억원 정도로 축소했다.

이는 2023 세계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게이트웨이에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는 구상이지만, 비용 문제로 10년 가까이 묵힌 사업에 거액을 선뜻 투자할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사업이 진척 없이 터럭거리자, 전북도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무리하게 전북개발공사에 개발사업을 떠맡겼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연장한 기간까지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립 비용의 회수조차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측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미뤄진다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내년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이 이뤄지고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 관광 목적의 투자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민의 장' 부문별 수상자 선정

김동길·황종석·김현덕·송신자씨 등 4명

정읍시가 '2019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최근 시민의장심사위원회를 열어 문화장 김동길(78)씨, 공익장 황종석(77)씨, 애향장 김현덕(66)씨, 효열장 송신자(80)씨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새마을장과 산업장 등 2개 부문은 대상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문화장을 받게 된 김동길씨는 갑오농민운동학명유적보존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동학혁명 정신을 기리고 이를 전파해 왔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11일로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황종석씨는 해화당환약방 대표로 지난 15년간 정읍향토문화학재단이 사장으로 재직하며 인재양성에 헌신했다. 애향장 김현덕씨는 재경정읍시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사업을 전개하며 고향발전에 기여했다.



김동길

황종석



김현덕

송신자

효열장 송신자씨는 결혼 후 간암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와 중풍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시할아버지를 간병하며 효의 모범을 보였다.

정읍시민의 장은 오는 11월1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금과면 주민 숙원사업 체육관·게이트볼장 문열었다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57억원 투입

순창군 금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한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은 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3년 선정돼 총 사업비 5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년여의

공사를 거쳐 뜻깊은 준공식을 하게 됐다.

전체 부지면적 8149㎡로 체육관은 건축면적 1561㎡(지상 1층) 규모에 배구 1면, 배드민턴 3면이 가능한 운동공간과 다양한 실내 행사가 가능한 무대와 음향 설비, 샤워실,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게이트볼장은 국제규격 경기장 1면과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순창 금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이 지난 8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순창군 제공>

군산시,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주의 당부

일명 '화상벌레'...물릴 경우 화끈거리고 상처 유발

군산시가 일명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사진)가 출몰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화상벌레가 관내 대학 기숙사 및 아파트 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학교(기숙사) 등에 안내문을 보내 주의사항 및 방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벌레는 국내에 토착화했다고 보이며, 주로 산이나 평야의 습한 지역에 서식하여 크기는 6~8mm 정도로,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또 낮에는 주로 먹이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발하는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상벌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상처가 심하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실내에 뿌리는 에어로졸과 같은 가정용 모기살충제로도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화상벌레와 접촉했다면 만지거나 긁지 말고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고 연고를 발라야 하며, 상처가 심해지는 경우 물집 및 화상과 같은 자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책으로 탐을 쫓다' 북 페스티벌 개최

모현도서관 일원서 독서골든벨·동화작가와의 만남 등 진행

익산시는 12일 모현도서관과 모현공원 일원에서 '2019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책으로 탐을 쫓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동화작가와의 만남, 북 캠프존 등 책을 매개로 한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모현공원에서는 식전행사인 매직&버블쇼와 책 읽는 가족·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여태명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모현도서관 체육관에서는 초등 3~6학년 대상 독서왕을 뽑는 독서골든벨이 진행돼 독서지식을 겨룬다.

이어 북DJ 박형섭 작가의 진행으로 BOOK 라디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어가곤 책공연 '호랑이한테 잡혀먹혔다'와 플루트, 국악, 비올라 등 5중주 공연이 어우러지는 특별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독서문화체험마당에서는 작은도서관과 독서동아리,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체험부스가 마련돼 북아트, 클레이, 인형극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서점연합회와 북봄, 여우당, 나는별, 시금치출판사의 참여로 도서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장터를 열어 집에 있는 책을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드론에 담아 본 '남원의 모습' 영상·사진 공모전

남원시가 드론으로 아름다운 남원의 모습을 하늘에서 담은 영상과 사진을 찾는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을 찾아보자'를 주제로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숲, 길, 산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 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면 된다.

영상부문 10개 작품, 사진부문 15개

작품을 선정한다.

영상부문 대상에 300만원, 사진부문 대상에 100만원 등 총 1430만원의 상금을 준다.

희망자는 남원시 드론영상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parkdi@korea.kr)로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회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